대학무용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방향 연구*

오레지나**

목 차

Abstract
Ⅰ. 서론
Ⅱ. 대학무용교육의 위기
Ⅲ.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의 의미
Ⅳ. 대학무용 특성화를 위한 교육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new direction of specialization for higher education capacity building in college dance education

Oh, Regina·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specialization in college education means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in higher education through expanding capacity of education reflecting the specialty and the mission of the university. Expanding the capacity of education is related to the capability of accomplishing the educational goal, developing creative and practical human resources. The specialization of college dance education, therefore, aims to promote creative students who can create new culture understanding and react the changes in society. At the same time, new educational plans for the goals of the specialization of college dance education become critical.

The new directions of the specialization of dance education for universities can be summarized

* 이 논문은 2013년 한국무용교육학회 제20회 학술심포지엄 발제원고 '대학무용교육과 취업'을 기초로 연구되어짐.

** 대구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논문투고일: 2013. 7. 20. 심사일: 2013. 8. 20. 게재확정일: 2013. 9. 5.

in several ways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 of culture-reflection or culture- diagnosis needs to be enhanced. Such an attitude based on humanities is needed to be the primary. Culture-reflection or culture- diagnosis enables students to understand and address social changes. Second, the creative and practical system of education to deal with social change needs to be built. This system is based on the concepts such as Reflection-Acceptance-Creation, Research-Education-Action, School－Home-Community, Understanding-Intensiveness-Applications, and Capacity Building-Self-realization －Social Contribution. Third, the multi-lateral education to bring about culture-creator can be realized through Creation and Sharing, interdisciplinary majors which can practice Relationship and Sharing, and making links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The new directions for the specialization of dance education by expanding the educational demands a new curricular system. The social changes in the 21st century have destroyed the boundaries among the discipline and demand new vocations and social roles finding the “inter” and new boundaries. Accepting such changes means building a new paradigm, in which interdisciplinary majors, linking industry and academia, and system-curricula are extremely pursued in multi-focus.

key words: 대학교육, 무용교육, 특성화, 교육방향, 교육역량강화

주요어: college education, dance education, specialization, direction of education, higher education capacity building

Ⅰ. 서론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2018년에는 총인구가 감소되고 65세 인구는 14% 이상이 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대학의 미충원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은 생존과 발전을 위한 무한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글로벌화, 산업구조의 변화, 새로운 기술트랜드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의 재조명 필요에 의해 대학은 특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학부교육의 질을 개선하여 현장중심의 학부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취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평가가 강화되면서 취업률은 곧 교육의 질과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주요 대학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에 취업률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2012년 12월 6일에 발표된「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에서는 취업률과 관련하여 교내취업을 취업대상자의 일정 비율(3%)까지만 인정하고 취업의 지속성을 반영하고, 대학이 조사 기준일 직전에 단기 취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와 학자금대출제한대학평가에도 유지취업률[1]을 일정부분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취업률을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취업에 대한 대학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각 대학들은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 평가지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과를 없애는 비민주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예술관련 학과가 잇달아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각 대학 예술관련 학과들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무용학과의 경우도 폐과와 통폐합의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나 순수예술과 관련학문들은 대학특성화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대학평가로 학과가 폐지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사회변화에 능동적이지 못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부는 2013년 7월 예술분야 취업평가 제외라는 발표를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성화는 취업률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이외의 지표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성화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무용교육의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추진하기 위한 특성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대학무용교육의 위기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1980년 교육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단행된 고등교육 문호개방과 1995년 5월 31일 개혁에 따른 대학 설립준칙주의 도입 및 대학 자율화 정책 확대 추진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 37%는 OECD 평균 28%를 상회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9.0%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계 경제 포럼(WEF)이 2010년 발표한 국가 경쟁력과 고

1) 유지 취업률 : 취업통계 조사기준일 건강보험 DB 가입자 중 일정기간(예: 3개월, 6개월 등) 경과 후 계속 건강보험 가입자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는 이미 반영되고 있음

등교육 시스템의 질 순위 비교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3위인 반면, 대학경쟁력은 46위로 대학경쟁력이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유현숙, 2011:7).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개혁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에서는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전 국민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라는 기본 방향을 토대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 정책',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학생수를 적정수준으로 감축하여 대학의 미충원 현상을 완화하고 교육·연구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2004년)'을 실시하였으며, '대학특성화 추진방안(2005)'을 통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특성화 분야로 지역 및 학내 자원을 집중하도록 '대학 재정지원사업(2007)'을 실시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특성화지표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대학정보공시제(2008)'의 시행을 통해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를 공개함으로써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교육행정으로 대학평가지표가 각 대학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고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취업률이기 때문에 취업은 의미와 가치보다는 숫자와 양의 의미로 대학의 교육현장을 뒤흔들고 있다. 대학평가 항목 및 배점은 표1과 같다.

표1.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

구분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교육과정	장학금 지급율	등록금 부담환화	법인지표
'13학년도	20%	30%	7.5%	10%	10%	10%	5%
'14학년도	15%	25%	10%	12.5%	10%	10%	5%

(교육과학기술부, 2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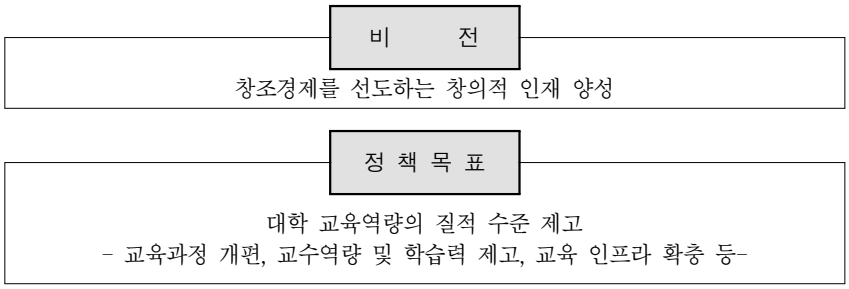
표1에 기준하여 교육부 대학평가 결과 총점 하위 15%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어 여러 제재가 가해지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제재는 국가지원 대학사업에 대한 규모축소나 제한, 재학생 장학혜택의 제한, 대학의 역량 및 이미지 타격으로 인한 입학률 감소, 교과부 구조조정 대상,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실질적인 제약이 결과로 따르기 때문에(한국예술연구소, 2013), 각 대학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구조조정의 결과로 2009년 대전대 무용학과는 방송공연예술학과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에는 청주대 무용학과가 폐지되었고 순천향대는 연극무용과로 통합되었다. 2012년에는 동아대 무용학과가 폐지되었고, 원광대 무용학과도 스포츠산업·복지학과로 통폐합되었으며, 2013년 대진대는 연극영화과로 통폐합되어 2014학년도 무용학과 신입생 선발을 중지하였다. 이렇듯 충청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구조조정의 바람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대학무용교육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Ⅲ.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의 의미

교육부는 창의인재양성, 글로벌 지식허브, 사회통합 등을 대학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대학별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자율적 특성화를 유도하여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특성화란 대학의 강점과 건학이념 등을 반영한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역량 강화가 바로 대학교육 특성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무용교육에서 교육역량이란 무엇일까?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바로 교육의 성과 즉 인재양성이다. 교육부는 그림1과 같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용학과의 특성화도 어떤 인재상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를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문화창조자로서의 인재상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창조자 양성을 위한 창의적인 학부교육을 위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을 다각화하고 현장중심의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변화를 읽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와 성찰, 그리고 현장성에 기초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가 무용교육 특성화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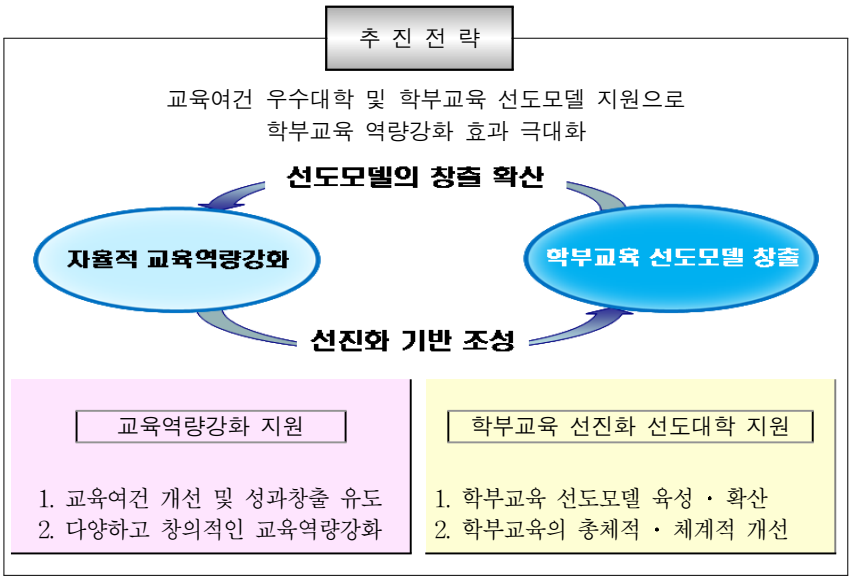


그림1. 2013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비전 및 추진전략(교육부, 2013:4)

Ⅳ. 대학무용 특성화를 위한 교육방향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우리시대에 문화는 삶의 반영이며 소비되는 상품이며, 계량화된 화폐에 제한되지 않는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축적한 상징적 힘과 감성적 자산을 포함한다. 또한 소유에서 공유로 정착에서 이동으로(조윤경, 2007:84-88) 관계와 하이브리드(Elaine Baldwin, 조애리 역, 2008:37)로 변화하는 21세기 문화의 변화를 읽어내고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생명자본(Kaushik Sunder Rajan, 안수진 역, 2012:16)으로서의 생명, 관계, 창조의 개념을 문화의 생산자이며 소비자로서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문화의 프로슈머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인재들이 문화생산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재확립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특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문화성찰 및 문화진단 교육 강화

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진단 및 문화성찰교육이라 할 수 있다. 문화는 사

회 구성원에 의해 지금, 여기의 축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란 시간적 측면과 이곳이라는 공간적 측면을 함께 지니는 개념으로서 과거 경험의 역사적 결과물이다. 행위의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흐르지만 행위의 의미와 연관된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 과거로의 흐름을 갖는다. 현재는 인과율적 관점의 원인과 결과, 목적론적 관점의 동기와 목적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루어진다.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결단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터전으로서 역사와 초월, 사건과 실체, 주체와 타자의 상호영향에 의하여 지금 이곳에서의 결단과 신념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그 안에서 의미의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체로서 행위의 주체인 나의 모든 존재의미가 드러나는 생성의 순간으로 문화의 현재를 인간존재의 현재화라는 관점에서 성찰해야 한다(신승환, 2008:143-146). 이런 관점에서 문화는 존재의 터전이며, 우리의 믿음, 의미추구의 행위, 인간의 실존적 조건과 초월적 결단 등이 이루어지는 터전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는 우리가 문화에 부여하는 의미와 그것을 구현하는 행위에 의해 가능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문화교육, 예술교육, 무용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재에 대한 성찰인 것이다. 이러한 인문학적인 태도는 무용교육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성찰은 21세기 문화진단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사회변화를 읽어내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진단 교육과 문화성찰교육의 강화는 특성화교육을 위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하는 창의, 실천교육 체계 구축

‘일’, ‘업무’, ‘직업’ 등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흔히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지만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각각이 지닌 의미는 다르다(홍두승 외, 1999:1-2). 우선 ‘일(work)'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을 창출해내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업무(job)'는 일 중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직업(occupation)'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수행하는 일의 유형을 지칭’하는 것이다. 직업의 사회적 구성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기술적 혁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조남두, 2010:18-19). 21세기를 특징짓는 정보화와 세계화는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영향을 통해 사회는 점점 복잡, 다양하게 되어 수많은 종류의 직업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열린 사고와 실천력이 필요하다.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예술인 복지법, 제1장 제2조). 무용인들이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사회 속에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사회변화를 읽어내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능력과 실천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우리가 말하는 직업(職業)이라는 용어에서‘직(職)’은 공동사회에 있어서 개개인의 사회적 역할의 분배인 직분을, ‘업(業)’은 일반적으로 일 또는 행위를 일컫는다. 따라서 직업이라는 말은 직과 업의 양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면서 종합하는 의미(조남두, 2010:20)를 가지고 있다. 이상적인 직업 또는 바람직한 직업이란 경제적 보수(생계유지), 사회적 기여(사회적 역할 분담), 자아실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추어야 한다(이태하, 임홍순, 2009:19).

그렇기 때문에 대학무용교육의 특성화를 위한 교육은 학교(역량강화)-학생(자아실현)-사회인(사회적 기여)의 연장선상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실천지능을 함양할 수 있는 전공의 심화와 사회적인 소통을 위한 창의교육과 실천교육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창의교육과 실천교육의 체계는 성찰-수용-창조/ 연구-교육-실천/ 학교-가정-사회/ 이해-심화-적용/ 역량강화-자아실현-사회적 기여로서의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3. 문화창조자 양성을 위한 다각화된 교육의 실천

시간과 공간의 다른 펼침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문화는 창조되어가고 있다. 특히,사회적인 지위보다 자기실현을, 외부 평가보다 내면적 성장을, 금전보다는 시간을, 물질적 만족보다 창조적이고 정신적인 경험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등, 기존의 성장 중심의 가치관에서, 성숙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제3의 대안을 내놓고, 삶의 세세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신인류를‘문화창조자’라 한다.

문화창조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신념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성이다. 그들은 생태, 환경, 정치, 사회, 문화현상은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지속적으로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나간다. 또한 전통과 현대를 하나로, 전 세계와 지역을 하나로, 내면과 외면의 변화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된 문화를 개발하고자 노력한다(Faul Ray & Sherry Anderson, 임정재 역,

2006:31-133).

이미 지나가버린 시대의 학문으로는 변화하는 사회를 다원적인 차원에서 모색할 수 없다. 존재의 본질적 가치 인식들이 인간에서 자연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지식과 물질을 소유하는 개념에서 공유와 협력으로 전환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학문과 사회 공동체들과 수평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실제적으로 공유하는 체험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한혜리, 2013:34-35).

무용학과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무용인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바람직한 인적자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다. 김화숙은 이미 1993년도에 '무용(학)과 졸업생 진로문제의 방향 모색을 위한 무용(학)과의 체제분석'에서 무용 전문인 활동영역 확장을 위해 무용교육분야(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무용교사, 무용교육행정가의 양성), 매체(Media)분야(라디오, 방송, 신문, 잡지 기자(무용담당), 편집자, 무용담당 PD 양성), 사회무용분야(사회무용지도자의 육성), 무용치료분야(전문 무용 치료사 양성), 무용학원분야(무용학원 지도자 양성), 인접분야(무용의상 디자이너, 무용사진 작가, 무용대본 작가, 무대장치 디자이너, 조명디자이너, 무용음악 작곡가, 공연 기획자 등)로 나누어 전국무용학과의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강조하면서 교육의 방향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교육방향의 다각화에 대한 제안과 예술인복지법 그리고 21세기 새롭게 부각되는 직종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2와 같다. 다각화된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표2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용분야 활동영역들과 다양한 직종들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하며 이를 역량강화-자아실현-사회적 기여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천적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표2. 무용분야 활동영역 및 직종

영역	하위영역	직 종
창조	연구	학자, 연구원 등
	창작	안무가, 공연 기획자, 연출가, 예술감독, 의상디자이너, 무용음악가, 무대분장 전문가, 무대미술가, 미디어아트 전문가, 비디오댄스 전문가,
	실연	무용수, 배우
	기술지원	무대조명, 음향, 촬영(영상, 사진) 등
소통과 공유	교육	교사(유치원, 초등, 중등), 교수(전임교수, 외래교수), 예술강사(학교, 사회, 학원, 문화센터 등) 등

영역	하위영역	직 종
	행정 및 경영	행정가, 공무원, 문화예술기업가, 문화재단 및 회사 직원, 등
	커뮤니티	DA(Dance Animateur-커뮤니티댄스 전문가), 포털사이트 제작 및 운영, Ecodance(생태무용) 전문가 등
	치유	치유무용전문가, 무용상담가, 움직임치료전문가, 무용치료전문가 등
	복지	문화예술복지사 등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룹미션을 기획, 실천함으로써 문화생비자로의 창조와 공유, 관계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무용학과의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다각화는 연계전공, 사회연계트랙(산학협력), system교육과정을 통해 가시화될 수 있다. 따라서 단일학과의 교육과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직종에 대한 역량강화는 관련학과들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현장 속에서의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교육내용의 심화와 확대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의 network가 가능한 system교육과정(교육-연구-봉사-취업의 선순환 교육과정, 재학생-졸업생-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학과연계, 학년 연계, 졸업생 연계, 지역사회 연계 등)을 도입하여 교육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교육방향의 다각화는 변화하는 시대를 읽어내고 대처하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전공을 심화, 확장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될 것이다.

Ⅴ. 결론

대학교육의 특성화는 대학의 강점과 건학이념 등을 반영한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역량 강화는 교육목표의 달성 역량 즉,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질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대학무용교육의 특성화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양성 즉 사회의 변화를 읽고, 수용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의 설계가 중요하다. 인간은 창의적 활동을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무용은 보다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행복의 원천으로 인간 개체의 생존 발전과 그들의 공동체인 사회적 기능의 역할분담, 그

리고 자아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인재들이 문화생산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재확립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특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대학무용 역량강화를 위한 특성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문화성찰 및 문화진단교육의 강화이다. 이러한 인문학적인 태도는 무용교육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 문화성찰은 21세기 문화진단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사회변화를 읽어내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하는 창의·실천교육의 체계 구축이다. 창의교육과 실천교육의 체계는 성찰-수용-창조/ 연구-교육-실천/ 학교-가정-사회/ 이해-심화-적용/ 역량강화-자아실현-사회적 기여로서의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창조자 양성을 위한 다각화된 교육의 실천이다. 교육의 다각화는 창조와 공유, 관계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연계전공, 사회연계트랙(산학협력), system교육과정을 통해 가시화할 수 있다.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는 대학교육과정의 새로운 편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21세기 사회의 변화는 학문의 경계를 허물었고 사이(inter)와 경계의 새로운 발견을 통해 새로운 직종과 역할을 양산하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대학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단편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새로운 편제 즉, 연계전공, 산학협력, system교육과정 등을 다각화된 시각으로 펼쳐 그 공유와 확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대학교육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이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화숙(1993), “무용(학)과 졸업생 진로문제의 방향 모색을 위한 무용(학)과의 체제분석”, 한국무용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Vol.3**, 7-27.

신승환(2008),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지평**, 한길아트.

유현숙(2011),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포럼자료.

이태하, 임홍순(2009), **현대인의 직업과 윤리**, 민지사.

정석용, 이규은(2009), **자기계발과 직업**, 동문사.

조남두(2010), **현대인의 직업윤리**, 동문사.

조윤경(2007),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상상력**,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한국예술연구소(2013), “예술창작활동 취업평가기준 연구”, 한국예술연구소 연구보고서.

한혜리외 6명(2013), **무용교육론**, 한학문화.

홍두승외 2명(1999), **한국의 직업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교육과학기술부(2011),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안)”.

_____(2012a),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 보도자료.

_____(2012b),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 보도자료.

교육부(2013), “20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2012), “예술인 복지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query=%EC%98%88%EC%88%A0%EC%9D%B8+%EB%B3%B5%EC%A7%80%EB%B2%95&x=11&y=11#liBgcolor0

Baldwin E., Longhurst B., McCracken S, Ogborn M., Greg S.(2004), *Introduction Cultural Studies*, 조애리, 강문순, 김진옥, 박종성, 유정희, 윤교찬, 최인환, 한애경(역, 2008), **문화연구의 이론과 실제 문화코드**, 한울.

Rajan Kaushik S(2006), *Biocapital : The Constitution of Postgenomic Life*, 안수진(역, 2012), **생명자본 세놈이후 생명의 구성**, 그린비.

Ray F. & Anderson S.(2000), *THE CULTURAL CREATIVES*, 임정재(역, 2006), **세상을 바꾸는 문화창조자들**, 한스컨텐츠.